



해경스님의

### 경전읽기

#### 법화경 ①해제

〈법화경〉의 원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의 '삿다르마-푸나리카-수트라(Saddharma-Pundarika-Sutra)'이다. '삿다르마(Saddharma)'란, '삿(Sat)'과 '다르마(dharma)'라는 말의 합성어로 '삿'은 '진실한, 바른(正, 眞)', '출렁한(善, 善)', '뛰어난(勝, 勝)' 등과 같은 뜻을 가졌으며, '다르마'는 한역하면 '법(法)'이다.

여기서 '삿'과 '다르마'를 합친 '삿다르마'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중국의 촉법호(竺法護)는 '정법(正法)'이라 번역했고, 네덜란드의 케른(Kern)은 '진실한 법'으로, 또 프랑스의 부르뉴프(Bumouf)는 '출렁한 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일본 이노우에(岩波) 문고의 법어 번역본에는 '바른 가르침'

속세에 있으면서 현상의 변화에 현혹되지 않고 우주의 진리에 순응하여 바르게 살며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면서 세상을 이상향(理想郷)으로 만들어 가는 길. 더욱이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본질을 평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설한 데없이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화경〉은 중국의 서진(西晉) 경제(景帝)의 태강(太康) 7년(286)에 촉법호(竺法護)가 번역한 〈정법화경(正法華經)〉 10권과 요진(姚秦) 문환제(文桓帝)의 홍시(弘始) 8년(406)에 쿠마라지바(鳩摩羅什)가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 수(隋) 문제(文帝) 원년(581)에 즈나나 구프타(闍那多) 등이 번역한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 7권 등의 원역본이 있고 일부본만 번역한 초역(抄譯)이

### 자유롭고 바르게 사는 길

#### '정법화경' 산스크리트 원전과 가까워

으로 되어 있고 쿠마라지바(鳩摩羅什)는 이를 '묘법(妙法)'이라 번역했다.

'푸나리카(Pundarika)'는 흰 연꽃(白蓮華)이다. 인도 사람들은 흰 연꽃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여기는데, 진흙 속에서 나며 더러운 흙탕물에서 꽃을 피우지만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밝고 맑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속세에서 생활하면서도 속세에 물들지 않고 자유자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수트라(Sutra)'는 '편 실'이라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꽃을 실이 꿰어 머리에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줄기의 계통으로 정리한 것을 '수트라'라 했다. 중국의 '경(經)'이라는 말도 원래는 날줄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도끼나 성인의 말씀을 엮은 책이라는 뜻이 나왔으니 매우 적절한 번역이라 하겠다.

요컨대 '삿다르마-푸나리카-수트라' 즉 '법화경'이란,

그러면 이들 번역본과 산스크리트 원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첨품묘법연화경〉의 서문에는 〈법화경〉의 여러 한역에 관해 설명한 문헌학적인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즉 '옛날 동황의 사문 촉법호가 진무(眞武) 때 정법화(正法華)를 번역했다. 후진(後秦)의 요흥(姚興)은 다시 나습(羅什)에게 청하여 묘법연화(妙法蓮華)를 번역케 했다. ...'

현재 우리들은 〈법화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쿠마라지바의 〈묘법연화경〉만을 〈법화경〉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산스크리트 원전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정법화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경 스님은 1933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출가했다. 법명은 해경(惠耕), 당호는 화음(華音), 법화불교대학장과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 수유리 무심정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법화경 이야기〉 〈법구경 입문〉 〈법화삼부경〉 〈우리말 법화경〉 〈법화경 총서〉 〈관무량수경〉 등 다수의 경전 번역서와 해설서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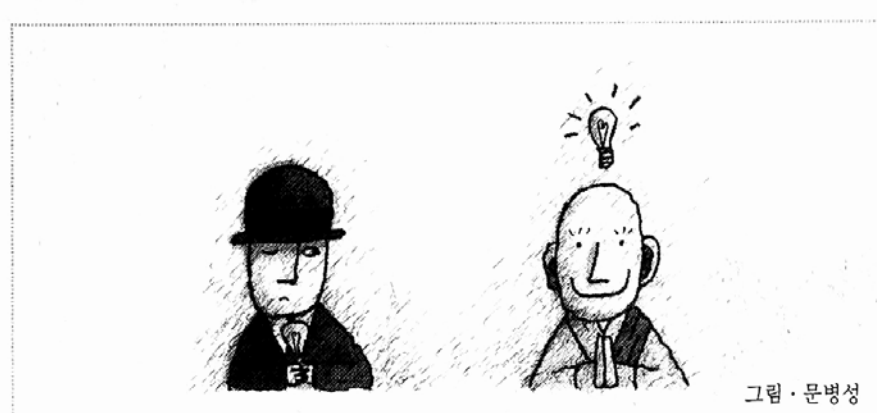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깨달음도 혼돈 거쳐야 온다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③

#### 혼돈과 축퇴

별들은 임종을 맞은 순간 중력붕괴라는 극심한 혼돈상태에 빠져들면서 폭발하거나, 다량의 물질을 방출하면서 중심부에 초고밀도의 천체를 탄생시킨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밀도는 사각실량 크기의 질량이 1그램(圖)에서 21그램(백금) 정도이다. 그러나 태양과 같이 질량이 적은 별이 죽으면서 남기는 백색 왜성(矮星)의 밀도는 수십 톤 정도이고, 태양질량의 8~20배 되는 무거운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남기는 잔해인 중성자별의 밀도는 수백~수천 톤이다. 태양질량의 20배 이상 되는 아주 무거운 별의 잔해인 블랙홀은 수십억 톤 이상의 초고밀도를 가진다. 이러한 초고밀도의 세계는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

고무풍선을 밀게 하거나 공기를 더 주입하면 풍선 내부의 공기압력이 커져 풍선이 팽창하고, 반대로 공기를 차게 하거나 공기를 빼내면 풍선이 줄어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기체의 압력이 올라갈수록 온도는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이 떨어진다. 즉 경험세계에서는 기체의 압력이 온도와 밀도에 비례한다. 만약 영하 273도(절대온도 영도)로 낮추면 기체 분자의 운동은 정지되므로 압력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초고밀도의 세계에서는 기체 압력이 온도에 무관하며 오직 밀도에만 관련된다. 그래서 절대온도 영도에서도 기체 입자는 큰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초고밀도의 상태를 축퇴(縮退) 상태라 부르며 백색 왜성, 중성자별 블랙홀 등은 축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축퇴 상태라 마치 큰그릇에 담은 달걀들을 완전히 깨버리면 그릇바닥에 모여 달걀이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어드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러면 우주에는 이러한 축퇴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우주가 150억 년이 지난 세월을 지내는 동안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백색 왜성, 중성자별, 블랙홀 등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축퇴 물질은 우주에서는 매우 흔한 물질이다. 지상에서 이러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축퇴 물질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것까

지는 않다. 하지만 지구라는 극히 제한적인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경험세계는 우주 전체에 비하면 찰나적이고 티끌과 같은 시공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험에 기초한 폐쇄적인 인식 세계를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고 사고해야 한다. 우주적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주적 세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가 점차 불안정해지면 그 정도가 증폭되면서 물리량이 급격히 변화하는 혼돈상태에 이른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비약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앞선 정보로 다음 상태를 기술할 수 없게 된다. 혼돈은 그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혼돈의 규모가 작은 상태로 기존의 질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질서로 적응해 가는 경우이고, 둘째는 새로운 체계를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적응해 가는 경우, 셋째는 급속한 불안정성 성장으로 양에 의한 질의 변화가 유발되는, 가장 심한 혼돈상태이다. 별의 탄생이

나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부르는 혁명이 후자에 해당한다.

불교에서 깨침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으로 크게 점수와 돈수를 든다. 점수는 경험과 인식의 반복과 연속적 재생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높은 인식과 지혜의 경지에 이른다. 반면에 돈수는 이러한 점진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순간 단박에 깨침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즉 돈수는 일종의 불연속적 변화인 비약을 통한 극심한 혼돈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점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항상 과거의 축적된 정보와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인식하고 사유하며 적응해 간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상호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연속적 비약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축적된 과거의 경험과 지식 및 사유의 열매를 바탕으로 한 순간적인 통일적 영감에서 이루어지는 깨침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점수와 돈수는 수행과정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인 질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 점수가 돈수를 놓고 돈수가 점수로 이어지면서 깨침은 새로운 깨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점수와 돈수 중 어느 한쪽에 집착함은 쌍사쌍조의 참맛을 그리는 것이 아닐까?

■이시우/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 타락한 물질문명 식상 동양정신서 자유 찾기

#### 지구촌 불교 / 美·佛의 불교열풍

프랑스와 미국에서 불교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의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 지에 따르면 두 나라에서 불교신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불교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해설이 구구하지만 물질문명에 신물이 난 서양인이 불교가 추구하는 순수한 영혼을 갈망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늘날 동양의 몇몇 국가들이 '기독교국'이 돼가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프랑스는 불교에 '대륙' 당하고 있는 셈이다.

'20세기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놀랄만한 현상'이라는 사우스차이나모닝 지의 묘사처럼, 프랑스에서의 불교도의 물결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프랑스 불교도연합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자는 약 60만 명. 94년 르 피가로 지가 조사했을 때 '나는 불교신자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불과 수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이제 30~40대 프랑스와 미국인 직장인들이 책상다리를 하고 새벽 좌선을 하는 광경은 더 이상 신기한 뉴스가 아니다. 풍성한 채식으로 아침을 먹고, 좌선, 열반, 윤회, 보시, 인과응보 등 불교 용어와 사상을 담은 책을 정독한다.

특히 프랑스와 미국인 4명중 1명이 불교의 핵심교리인 인과응보와 윤회를 믿는다는 '민기 힘' 조사결과까지 나와 있다. 미국 경우, 최근 갤럽조사에서 미국인 65%가 '삶에서 종교가 매우 중요하고, 내생을 믿는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다.

#### 불교신도 급신장... 관련도서 '불티'

#### 맥라이언 등 할리우드 배우도 귀의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인기 역시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중에 내리자마자 미국과 프랑스의 내노라하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만나려 한다.

미국에서 할리우드로는 거대한 티베트 불교 사원이다. 달라이 라마는 미국인의 혼을 사로잡는 할리우드의 스타들과 깊은 교분을 나누고 있다. 리처드 기어는 80년대 초부터 달라이 라마를 후원하면서 티베트 독립을 위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하는 열렬 신도다. 해리스 포드는 미 상원의외교위원회에서 티베트 독립을 위해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 알렉 볼드윈,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맥 라이언 등의 스타들도 '티베트에 자유!'라고 외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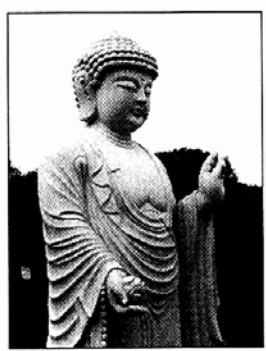
출판계에도 불교 서적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만 벌써 28권이 출간됐다. 종교관련 서적의 10%다. 93년에 나온 〈삼과 죽음에 관한 티베트의 책〉은 작년까지 17만부가 팔렸고, 장 클로드 카리에르가 내놓은 〈불교의 힘〉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이밖에도 콜롬비아대 심리학과 윌리엄 더빈 교수는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과 함께 명상시간을 갖는 것으로 유명하고, 뉴욕과 시카고 도심에는 티베트 마니아들을 위한 '티베트 카페'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 지는 달라이 라마의 지난해 6월 스위스 '디방' 지와의 인터뷰를 인용, "성숙한 깨달음을 통해 불교가 기독교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불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ojbou@uddhpa.com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 래방인에게 면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指示)해 놓았습니다.

출생년월일시를 묻지않고도, 온시간이나 전화해온 시간이나 가서 만사사람안 보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알고 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크게 잃어 왔는지, 안 잃었는지, ●현상이 약한지, 선한지, ●남에게 이익을 시키는지, 피해나 손해나 할 시키는지, 무익한 일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틀어다닌다면 알 수 있도록 점시(指示)해 놓아, 그리고 점(點)을 지칭함으로써 래인(來人)의 인식(顏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할이상한(而)上(人)으로서의 '카리시마', 한 가지하고, 존경, 귀와 받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 위속인이 올지, 안올지,
- 몸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매개가 될지 안될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몸태가 날지 안될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손이나 성질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신변 사생활, 악성인 인지,
- 부푼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일이든 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꼭 지켜야 할 것
- 언제부터 지다가 있게 될 것인지
- 집안기 운수운수지 터지지
- 본심을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이해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형사 담당에 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으리만
- 몹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覆)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抄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명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 改訂增補版

- 육임재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좋은 공중에 대해 손상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령이상법 (귀신정법 · 산술법 · 필미부정 · 일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남자를 둘러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다룰 수 있는 신명 · 신시(神示) · 신시(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능란(弄斷)되지 않도록 스님 · 음양오행가 · 신명재자 · 의사 등 활인 전문현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라
- 배 달: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또는 그 이전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화: (02)993-8680
- 주 소: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출판사등록번호: 간행 제9-00076호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해설이 타. 해설(解)에 비해 비싸지는 않더라도 이 책을 활용하여 후득 명성과 화근성취에 비하면 매우 값이 있는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45,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 지역에서 매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편리한 곳으로 정식서에서 확인전역의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대전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전주 017-377-7005